

‘주 52시간 근무제’의 그늘

전남 노선버스 인건비 부담에 노선 단축... 시민 불편 불가피
정시퇴근에 야근·회식 줄어 술집·노래방·택시업 수입 감소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역민들의 삶에도 본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얕아진 지갑’으로 생활에 그늘이 드리우는가 하면, 버스기사가 부족한 시내버스 회사들은 노선을 감축, 운행하면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버스 감축...시민 불편=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남지역 지역민들은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지역 운수업체 인력난을 반영, 노선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나주시지역의 경우 현재 300여명의 시내

버스기사가 하루 평균 15~16시간을 운행하는 실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추려면 70여명을 충원, 하루 2교대 근무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신규인력 확보가 어렵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노선 및 운행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저조한 농촌마을의 경우 노선 변경과 운행시간 단축의 주 대상지가 될 수밖에 없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곽지역 주민들은 이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주시는 우선, 하루 30회(3대) 운행하던 703번 버스를 없애고 신도·혁신산단을 오가는 701번 버스 운행 횟수를 기존 52회(4대)에서 48회로 줄이고 배차간격을 5분 늘린다. 또 320회(40대) 운행하던 160번

버스는 272회(36대)로 감축키로 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해 목포시의 경우 1개 노선 폐지, 10개 노선 감축 운행과 함께 운행횟수를 모두 142회 줄인다. 담양, 화순, 무안, 함평 등 4개 지역도 운행중인 농어촌 버스의 3개 노선(화순 2·함평 1)을 없애고 7개 노선(담양 2·화순 1·무안 3·함평 1개 노선)을 감축한다. 지역민 불편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 등 일부 지역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폐지 노선을 다시 복원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버스기사 확충 교육도 진행해 지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얕아진 지갑=‘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는데 따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

도 생겨나고 있다.

당장, 업계에서는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대리기사로 나선 직장인들이 부쩍 늘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13일 만난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요즘 20~30대 청년들도 대리운전에 뛰어 들면서 기사들이 1000명이나 늘었다더라”며 “경쟁은 심해졌는데 회식 자리가 사라지면서 정작 이용객은 줄어 큰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유흥·외식업체 등 일부 소상공인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광주지역 호프전문점 사업자는 2483명으로 전년 동월 2605명에 견줘 4.68% 감소했고 노래방 사업자도 1185명에서 1142명으로 3.63% 감소했다.

직장인들이 회식, 술자리 등을 위해 즐겨 찾던 술집과 식당, 유흥업소 등이 적객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끊기면서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근무일수가 줄어 급여가 줄었지만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막 농성에 들어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애용해주세요” 노사, 기아차서 공동 판촉활동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노사(勞使) 공동캠페인’을 통해 사측의 제품 판매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노조가 사측과 공동으로 판매 촉진 활동에 나선 것은 올해 처음으로, 더블스타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은 뒤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조가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기아차 전사원들을 대상으로 ‘노사공동 판매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행사 기간, 타이어 특별할인 판매, 공기압 체크, 타이어 상태 점검 등 경영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퇴근, 식사 시간에 기아차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금호타이어 구매를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노조가 전국금속노조 산하 사



금호타이어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노사 공동으로 ‘판매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금호타이어 제공〉

업장을 대상으로 판촉캠페인을 진행하고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사측도 현장에 필요한 고객서비스 인력

과 차량, 장비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전국금속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1만5천명 줄었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자영업자 14만8천명 6년래 최저

언제쯤 나아질까. 올해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광주·전남지역 고용 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광주 지역 취업자는 75만3000명으로 1년 전

(74만8000명)에 견줘 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1만7000명)을 제외하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8월에는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해(10차례)와

달리 1만 명을 넘어선 경우도 고작 3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 지표가 좋지 않다.

광주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2만명)보다 5000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3.2%로 1년 전(2.6%)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대표적 서민업종인 자영업자도 줄었다. 지난달 광주 자영업자는 14만8000명으로

로 전년도 같은 기간(15만4000명)에 견줘 3.7%(6000명) 줄었다.

광주 자영업자 수는 올해를 제외하면 지난 2012년 8월(14만8000명) 이래 가장 적다. 광주 도소매·음식·숙박업 일자리도 감소세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1년 전(16만5000명)에 비해 1만 5000명이나 줄어 15만명에 불과했다. 지난 6·7월을 제외하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8.05 (-3.18) ↓ 금리(국고채 3년) 1.92 (-0.02)
↑ 코스닥 671.56 (+0.71) ↑ 환율(USD) 1134.30 (+1.00)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매매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여부 심사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와 관련,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국내 제약·바이오 대표종목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22조원, 시총 5위에 이르는 삼성바이오의 거래 중지되면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증시 충격도 불가피해졌지만 실제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도 일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과 관련,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증권위는 또 지난 2014년의 경우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

증권위는 이에 따라 회사에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

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3년간 제한된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위의 이날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의 거래 정지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가총액 5위인 대형주인 만큼 거래가 정지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을 비롯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국세청, 전남 서부권 상공인 애로 청취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전남 서부권 상공인 4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형환 청장은 직접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자체 제작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세정지원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김형환 청장은 “기업인들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제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